

VAM, 1월 톤당 50달러 인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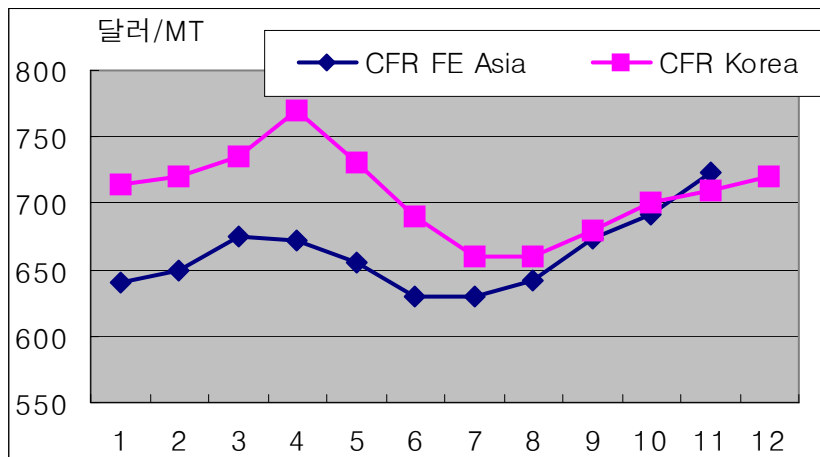
삼성BP화학, Celanese · Millenium 인상 이유 ... 초산 50달러 상승

12월 톤당 720달러에 거래됐던 VAM(Vinyl Acetate Monomer) 가격이 2004년 1월 톤당 50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VAM 독점 생산기업인 삼성BP화학은 “2004년 1월 Celanese와 Millenium이 발표한 오퍼가격이 톤당 50달러 인상돼 삼성BP화학이 공급하는 VAM의 1월 내수가격도 톤당 50달러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AM의 오퍼가격 인상은 주요 원재료인 초산의 말레이시아 BP Petronas Acetyls의 고시가격이 3/4분기와 4/4분기에 톤당 70달러 인상됐고, 2004년 1/4분기 고시가격도 톤당 50달러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VAM 가격추이(2003)



그러나 VAM은 2003년 일련의 공급중단 및 플랜트 가동중단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요약세로 VAM 생산기업들이 가격인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바 있고 또 1월은 VAM 비수기여서 수요에 따라 가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VAM 내수가격은 점착제용 기준 1월 톤당 714달러, 2월 720달러, 3월 735달러, 4월 770달러로 상승했으나, 5월 730달러, 6월 690달러, 7월 660달러, 8월 660달러로 하락했고 이후 9월 680달러, 10월 700달러, 11월 710달러, 12월 720달러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VAM 국제가격은 FE Asia 11월 톤당 722.5달러를 기록했으며 12월19일 710-720달러로 12월 들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VAM의 원료인 초산은 내수시장에서 삼성BP화학과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들의 가격협상이 진행 중으로 삼성BP화학은 톤당 40달러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02>